

## 기획예산처, 정부 AI 혁신의 심장이 되다. 'AI 예산 어시스턴트' 전격 도입

- '27년부터 AI 예산 어시스턴트가 예산 편성 및 지출구조조정 등 기획예산처의 예산업무 전반을 밀착 지원
- 나라살림을 더 꼼꼼하게 챙기면서, 직원들의 업무부담 경감도 기대

기획예산처는 4.29일(수), 서울지방조달청 및 정부세종청사 5동(영상회의)에서 박창환 예산총괄심의관 주재로 「AI 예산 어시스턴트 도입 점검회의」를 개최하였다. 이번 회의는 올해 새롭게 출발한 기획예산처를 정부내 AI 도입의 '퍼스트 무버(First Mover)'로서 조직 생산성을 근본적으로 혁신하기 위한 AI 예산 어시스턴트 도입 추진현황과 향후 계획을 논의하고자 마련되었다.

- \* 참석자: (기획처) 예산총괄심의관, 경제예산심의관, 인공지능디지털예산과장, 정보화담당관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공공AI전환지원센터장  
(재정정보원) AX재정혁신부장, 예산시스템운영부차장

기획예산처는 국정과제인 AI 3강 달성을 위해 '26년도 AI 예산을 전년 대비 3배 확대('25년3.3조원 → '26년9.9조원, +6.6조원)하여 GPU 등 인프라 구축, AX(AI 전환)를 통한 생산성 향상, 전문인력 양성 등을 적극 지원하고 있다. 특히, 부처 출범 첫해를 맞이하여 차별화된 혁신 DNA를 조직내에 이식하기 위해 예산업무에 특화된 'AI 예산 어시스턴트\*'를 전면 도입하여 AI 선도부처로 자리매김할 계획이다.

- \* 기획예산처의 예산업무 담당자가 대화형으로 질의를 입력하면 사전에 학습한 방대한 재정·사업 데이터를 토대로 즉시 맞춤형 정보와 답변을 생성해 주는 AI

AI 예산 어시스턴트 구축을 위해 우선 예산업무 전용 LLM(Large Language Model)을 도입하여 과거부터 축적되어 온 예산요구서, 사업 설명자료, 재정통계, 내부 검토자료 등을 모두 학습시킬 예정이다. 그간 예산 업무

실무자들은 예산편성 과정에서 실무자가 **과거 재정통계, 사업별 과거 예산추이, 외부 지적사항** 등을 직접 검색해 정리해야 했으며, 기존 사업 및 여타 신규 사업간의 **유사·중복** 여부도 검증해야 해서 늦은 밤까지 야근을 하는 경우가 많았다. LLM이 본격 도입된다면, 실무자들은 재정 데이터의 정밀한 분석을 바탕으로 사업을 **신속히 검토**할 수 있게 되어, 단순 반복 업무에서 벗어나 **정책 판단**이라는 본연의 가치에 집중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LLM이 제대로 작동하기 위해서는 **고품질의 AI 학습 데이터 확보**가 중요하다. 이에 기획예산처 내부적으로 축적되어 있는 양질의 자료들을 **AI 학습 데이터로 전환**하는 작업을 추진할 예정이다. AI 기술발전 이전에도 부처 내부적으로 자료 **DB화**를 통한 **업무 효율화** 작업이 추진된 적이 있었으나, 기술적·물리적 한계 등의 문제로 효과가 제한적이었다. 이번 AI 예산 어시스턴트 도입을 위해 우선 **통합 데이터플랫폼**을 구축하고 **개인 PC나 메신저, 웹하드** 등에 분산 보관되어 있는 **모든 자료들을 한 데 모으는** 작업을 진행한다.

또한 정부 공식문서 양식인 **'한글(HWP)'**을 AI가 정확하게 인식하지 못하므로 기존 **'한글'** 문서들을 AI가 학습 가능한 **형태(AI Readable)**로 변환한다. 향후 작성되는 모든 문서 또한 AI가 학습하기 용이한 **개방형 문서(HWPX)** 양식으로 작성하도록 의무화한다. 이를 통해 확보된 고품질 데이터는 AI 답변의 **정교함**을 높여, 예산 업무 과정에서 **신속하고 정확한 의사결정**을 지원할 것으로 기대된다.

※ AI 예산 어시스턴트 도입에 대한 기획예산처 직원A 의견

- 인사발령 직후 수백 개의 예산 사업 이력을 단기간에 파악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하지만 AI 예산 어시스턴트가 도입된다면 **과거 10년 데이터부터 최신 정책 동향까지 즉시 분석해 주니 정밀한 예산 편성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기획예산처는 5월초 사업 발주에 착수하여, '27년 5월부터는 AI 예산 어시스턴트를 예산업무에 전격 활용한다는 계획이다. 도입시기를 최대한 앞당기기 위해 예산업무 전용 LLM 도입과 데이터플랫폼 구축 작업을 동시에 진행하고, 추진상황을 지속 점검해 나갈 예정이다.

박창환 예산총괄심의관은 “속도가 두 배면 일도 두 배로 할 수 있다는 대통령의 국정 철학에 발맞추어, AI 예산 어시스턴트를 당초 계획보다 최대한 조기 도입하여 국가 재정 운용의 정확성과 업무 효율성을 동시에 극대화 하겠다”고 밝혔다.

|       |            |     |     |                           |
|-------|------------|-----|-----|---------------------------|
| 담당 부서 | 예산실        | 책임자 | 과 장 | 박환조 (044-214-2810)        |
|       | 인공지능디지털예산과 | 담당자 | 사무관 | 고광민 (sniper1019@korea.kr) |
| 담당 부서 | 기획조정실      | 책임자 | 과 장 | 주영 (044-214-1470)         |
|       | 정보화담당관     | 담당자 | 사무관 | 김태중 (fac60@korea.kr)      |

